특수아동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21. Vol. 23, No. 4, pp. 119～139
DOI: http://dx.doi.org/10.21075/kacsn.2021.23.4.11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과 만족도 관계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식 비교

주 영 하[1] · 박 미 진[2] · 김 기 룡[3]
[1]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강사, [2]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3]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of the Latent Classe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u, Young-ha[1] · Park, Mi-Jin[2] · Kim, Ki-Ryong[3]
[1,3]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2]Gurogu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atent classes that were distinguished by the intention to us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identify satisfaction affecting each clas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Metho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22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256 parents who were using th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ocated in Seoul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questions to understand the intention to use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performed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First,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latent class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were named ‘Literacy Arts Culture-centered type’, ‘Job Culture-centered type’, ‘Arts Citizen-centered type’, and ‘Literacy Job Arts-centered type’. Second,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latent classes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were named ‘Art-centered type’, ‘Exploration type’, and ‘Literacy-centered type’. Third, the satisfaction level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the highest in 'Literacy Job Arts-centered type'. **Conclu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tention to use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tween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tructured around the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well,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multiple dimensions.

※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Recognition, Latent Class Analysis, Person-centered Approach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등에 의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표준안 개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박미진, 주영하, 김기룡, 2020).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유기홍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교육부에서도 2021년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조성민, 2021. 11. 29).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평생교육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게 되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박미진, 김두영, 2016).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평생교육 참여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김기룡, 2020). 이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그동안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21년까지 23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등에서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2021년까지 설치 예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 학습자는 장애정도가 심하고(양인숙, 안덕근, 남영란, 한정은, 2020), 평생교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즐거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박미진, 김기룡, 2021).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할지라도 당사자주의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의사가 높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지와 권유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기룡, 2020).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자녀들이 직업능력향상교육 및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김기룡, 나경은, 2015), 자립생활 적응 기술, 사회적(지역사회참여)기술, 일상생활기술 등 개인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영, 박인용, 박미진, 윤지현, 조창빈, 2016).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목적 또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보다는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 등에 의해 요구되어 왔다(김기룡, 나경은, 2015; 김두영, 박인용, 박미진, 윤지현, 조창빈, 2016; 박미진, 김두영, 2016).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한경근, 김원호, 주교영, 2020),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박미진, 김기룡, 2021).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미진, 김기룡, 2021; 심석순, 2019).

장애인 평생교육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통된 인식과 각각의 입장을 고려한 차이 인식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평생교육 요구 및 지원 방안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미진, 주영하, 김기룡, 2020).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의견을 간과할 수 없기에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평생교육 참여 의향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또한 요구된다. 한편, 길혜지와 김민수(2019)는 평생학습자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참여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평생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과 특성에 따라 다원화될 수 있다고 하여 잠재계층 분석을 시도한 결과, 직업능력추구형, 여가문화향유형, 자기계발형, 사회기여추구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수요와 특성에 대한 이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영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차원적인 상호 관련성으로 각각 나누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어떠한 결합유형을 갖게 되는지, 이렇게 도출된 잠재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상호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구혜완, 정익중, 2019). 또한 분류된 잠재계층과 이용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을 유형화하여 참여에 대한 양상을 이해하고, 각 유형별 이용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은 곧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개

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잠재계층이 몇 개의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도출된 잠재계층과 이용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역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복합적인 참여 양상을 고려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임의로 표집된 222명의 발달장애인과 256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구체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약 570명이며, 발달장애인 가족(부모)으로 확대할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은 약 1,5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표본크기 산출식에 따라, 신뢰수준 95%로 오차확률 5%를 목표로 할 경우 발달장애인 230명와 가족 306명을 표본 수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용 및 발달장애인 가족용 설문지를 각각 개발하여 연구자, 발달장애인 전문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 부모 등 총 7명에게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용 설문지의 경우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읽고 이해하기 쉬운 글, 그림, 사진 등으로 수정보완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직접 설문 조사지를 각각 배포하였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설문지를 직접 읽고 이해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최소한으로 지원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1대 1로 설문지를 읽어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등 19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발달장애인 총 222부(응답률 96.5%)와 가족 303부(응답률 99.0%)의 조사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발달장애인 총 222부와 가족 256부를 최종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이용 의향 잠재계층을 유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이용 의향 중복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앞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수강하였으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이라는 질문 문항에 대해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5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이 있음은 '1'로, 이용 의향이 없음은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여부는 범주형 자료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모두 질문하였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

이 연구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총 3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용 만족도 3개 항목 질문 문항 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담당 교·강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직접 기입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 질문으로 '매우 불만족'이 1점, '불만족'이 2점, '보통'이 3점, '만족'이 4점, '매우 만족'이 5점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신뢰계수인 Cronbach's 값은 .739이고, 가족은 .56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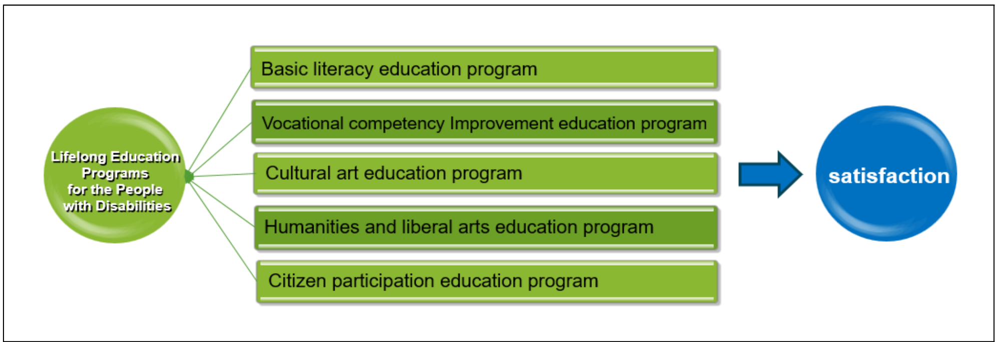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잠재집단이 분류되는지 확인을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구분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전통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한 군집분석 보다 구분된 집단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잠재계층분석은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유사한 속성으로 공유하는 상호 이질적인 유형들을 구분하여 집단별 의미를 도출하는 대상중심적 접근으로, 의미 있는 집단의 유형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Muthen & Muthen, 2000). 구체적 분석방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투입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중심적 접근 유형화를 한 후,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분석을 위해 잠재계층일분석에는 Mplus 7.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집단분석에서 잠재유형 집단의 수는 AIC, BIC,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RT), Entropy와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AIC와 BIC, LMRT는 잠재계층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되며, Entropy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대략 0.8 이상이면 모형적합도가 높아 특정 집단으로 분류가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Clark, 2010). 이때 LMRT 검증의 경우, 잠재계층이 k-1와 k개인 모형과 차이를 검증하여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준과 함께 잠재계층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McCrae, Champman & Christ, 2006) 최소 잠재계층에서 하위집단의 비율을 확인하여 해석 가능한 기준인 5%를 넘는(Jung & Wickrama, 2008) 것을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로 보고자 한다.

4. 연구 모형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Targe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mily

[Fig. Ⅱ-1] Research Model

[그림 Ⅱ-1] 연구 모형

Ⅲ.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Table Ⅲ-1> Information on research participants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Object		Research Participants	Frequency (persons)	Rati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222)	gender	woman	81	36.5
		man	141	63.5
	age group	20's	178	80.2
		30's	39	17.5
		over 40	5	2.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208	93.7
		alternative school graduation	11	5.0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3	1.3
	Type of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142	64.0
		autistic disorder	80	36.0
	degree of disability	severe	188	84.7
		not severe	34	15.3
	work experience	attending	5	2.3
		went to work, not now	14	6.3
		none	203	91.4
family (N=256)	gender	woman	207	80.9
		man	49	19.1
	age group	30's or younger	9	3.5
		40's	28	10.9
		50's	173	67.6
		over 60	46	18.0
	qualified recipient	qualified recipient or the secondary poor	56	21.9
		none	200	78.1
	relationship	parents	242	94.5
		brothers and sisters	6	2.3
		other relatives	8	3.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63.5%)이 여성(36.5)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80.2%)가 30대 이상(19.9%)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93.7%)이 대안학교 및 대학교 졸업(6.3%)보다 많았으며, 지적장애(64.0%)가 자폐성 장애(36.0%)보다 많았다. 대부분이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84.7%), 직장경험은 다닌적이 없음(91.4%)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적 있음(8.65)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많았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성별은 여성(80.9%)이 대부분이었으며, 50대(67.6%)가 많았다. 수급권은 해당없음(78.1%)이 많았으며, 장애 구성원과의 관계는 부모(94.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수강하기를 바라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Table Ⅲ-2> IIntention to us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ilities(Reply to multiple responses)

<표 Ⅲ-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이용 의사(중복응답)

Object	variable name	Frequency	case %	% (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222)	Basic literacy education program	144	22.2	64.9
	Voca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97	15.0	43.7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192	29.6	86.5
	Human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program	163	25.2	73.4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52	8.0	23.4
	Total	648	100.0	291.9
family (N=256)	Basic literacy education program	89	19.9	35.3
	Voca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88	19.7	34.9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127	28.4	50.4
	Human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program	69	15.4	27.4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74	16.6	29.4
	Total	470	100.0	177.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8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73.4%)’,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64.9%)’,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43.7%)’,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5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문해교육 프로

그램(35.3%)',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34.9%)',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29.4%)',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2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확인 및 유형화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 수 결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이용 의향 잠재계층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1개의 계층부터 계층 수를 증가시키면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Table Ⅲ-3> Appropriateness of the latent class model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표 Ⅲ-3> 발달장애인의 잠재계층 모형 적합도

Model	AIC	BIC	LMRT	Entropy	Latent Classification Rate %				
					1	2	3	4	5
1Class	1276.656	1293.656	-	-	100				
2Class	1201.607	1239.036	84.444***	0.825	68.2	31.8			
3Class	1147.015	1204.860	64.599***	0.912	36.1	35.23	28.7		
4Class	1105.811	1184.073	47.907**	0.918	35.4	26.0	23.6	14.9	
5Class	1064.387	1163.065	51.825***	1.000	36.9	26.6	15.8	13.5	7.2

** $p<.01$, *** $p<.001$

발달장애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AIC와 BIC는 계층이 수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LMRT는 4개의 계층까지는 수치가 감소하다가 5개의 계층은 다시 증가하였으며, 모두 유의미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모든 계층에서 수치가 1에 가깝게 혹은 1로 나타나 잠재계층 특정 집단으로 분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최종 잠재계층의 수는 이러한 통계적 기준들과 해석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분류 비율을 확인하여, 잠재계층을 4개로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4계층 모형의 각 집단의 크기는 35.4%, 26.0%, 23.6%, 1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Table Ⅲ-4> Appropriateness of the latent class model of family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표 Ⅲ-4> 발달장애인 가족의 잠재계층 모형 적합도

model	AIC	BIC	LMRT	Entropy	Latent Classification Rate %			
					1	2	3	4
1Class	1631.347	1649.073	-	-	100			
2Class	1603.626	1642.623	38.562*	0.731	58.2	41.8		
3Class	1587.206	1647.474	27.590***	0.925	49.6	34.9	15.5	
4Class	1585.191	1666.730	13.606	0.871	33.8	25.7	21.6	18.9

* $p<.05$, *** $p<.001$

발달장애인 가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AIC는 계층이 수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IC는 2개의 계층까지는 수치가 감소하다가 3개의 계층부터 수치가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LMRT는 4개의 계층까지는 수치가 감소하였고 3개의 계층까지 유의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모든 계층에서 수치가 1에 가깝게 나타나 잠재계층 특정 집단으로 분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최종 잠재계층의 수는 이러한 통계적 기준들과 해석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분류 비율을 확인하여, 잠재계층을 3개로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3계층 모형의 각 집단의 크기는 49.6%, 34.9%, 1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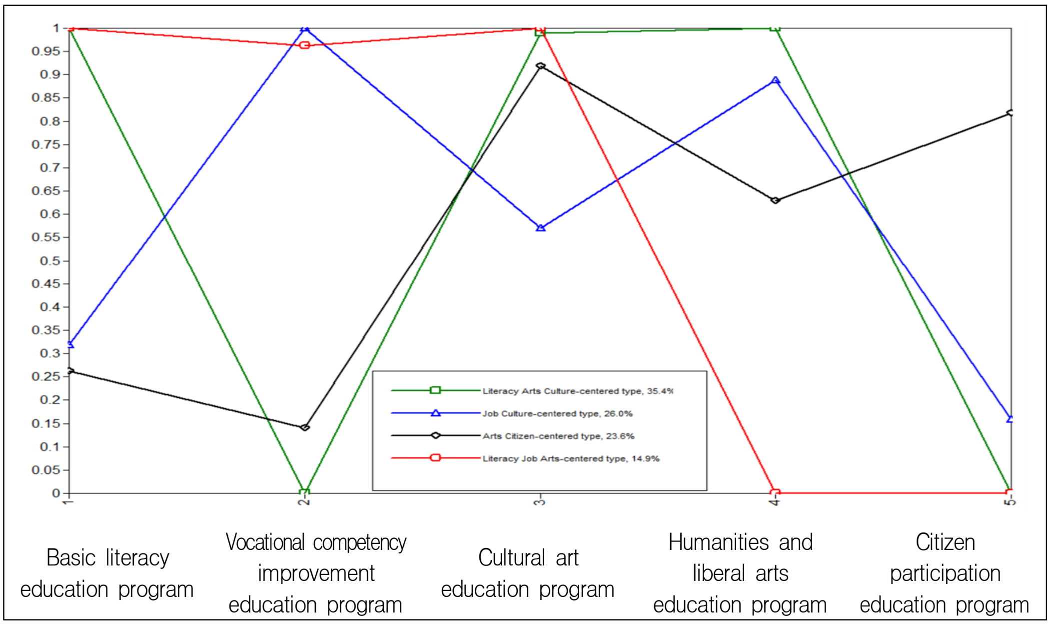
2) 하위계층 유형의 의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에 대한 해석은 각 설문 범주에 응답할 잠재계층 조건부 확률로 해석되고 발달장애인의 잠재계층 조건부 응답 확률은 <표 Ⅲ-5>, [그림 Ⅲ-1]과 같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잠재계층 조건부 응답 확률은 <표 Ⅲ-6>, [그림 Ⅲ-2]와 같다. 각 하위계층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잠재계층별 조건부 응답 확률 결과에 따라 각 하위계층을 명명하였다.

<Table Ⅲ-5> Conditional Response Probability by Typ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표 Ⅲ-5> 발달장애인의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

Object		1Class (35.4%)	2Class (26.0%)	3Class (23.6%)	4Class (14.9%)
Basic literacy education program	willing	80(100%)	18(31.6%)	11(22.4%)	35(100%)
	unwilling	0(0.0%)	39(68.4%)	38(77.6%)	0(0.0%)
Voca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willing	0(0.0%)	58(100%)	6(12.2%)	33(94.3%)
	unwilling	80(100%)	0(0.0%)	43(87.8%)	2(5.7%)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willing	79(98.8%)	32(55.2%)	46(93.9%)	35(100%)
	unwilling	1(1.2%)	26(44.8%)	3(6.1%)	0(0.0%)
Human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program	willing	80(100%)	53(91.4%)	30(61.2%)	0(0.0%)
	unwilling	0(0.0%)	5(8.6%)	19(38.8%)	35(100%)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willing	0(0.0%)	9(15.5%)	43(87.8%)	0(0.0%)
	unwilling	80(100%)	49(84.5%)	6(12.2%)	35(100%)



[Fig. Ⅲ-1] Latent Class Analysi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림 Ⅲ-1] 발달장애인 잠재계층 유형

발달장애인의 잠재계층 4개의 유형은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첫째,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은 전체의 35.4%를 차지하였으며,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100%, 98.8%, 10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모두 0.0%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직업인문교양중심형'은 전체의 26.0%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100%, 91.4%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0.0%, 15.5%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은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직업인문교양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은 전체의 23.6%를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93.9%, 87.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22.4%, 12.2%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은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으며,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100%, 94.3%, 10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시민참여교육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모두 0.0%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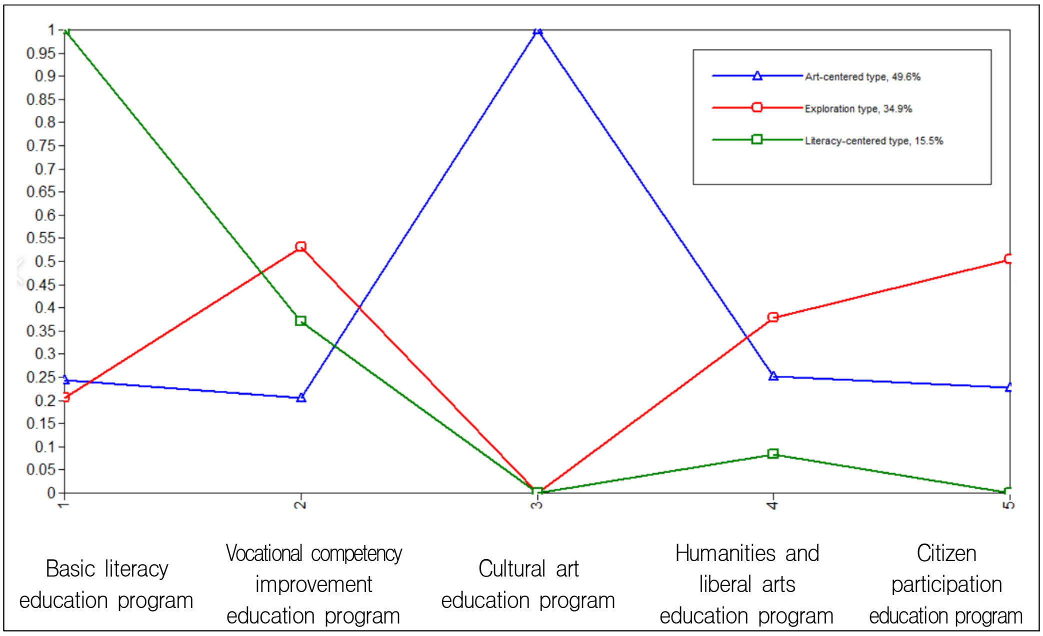
<Table Ⅲ-6> Conditional Response Probability by Type of Family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표 Ⅲ-6> 발달장애인 가족의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

Object		1Class (49.6%)	2Class (34.9%)	3Class (15.5%)
Basic literacy education program	willing	31(24.4%)	13(15.5%)	45(100%)
	unwilling	96(75.6%)	71(84.5%)	0(0.0%)
Vocational competen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willing	26(20.5%)	46(54.8%)	16(35.6%)
	unwilling	101(79.5%)	38(45.2%)	29(64.4%)

(Continued)

Object		1Class (49.6%)	2Class (34.9%)	3Class (15.5%)
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willing	127(100%)	0(0.0%)	0(0.0%)
	unwilling	0(0.0%)	84(100%)	45(100%)
Human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program	willing	32(25.2%)	34(40.5%)	3(6.7%)
	unwilling	95(74.8%)	50(59.5%)	42(93.3%)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willing	29(22.8%)	45(53.6%)	0(0.0%)
	unwilling	98(77.2%)	39(46.4%)	45(100%)



[Fig. Ⅲ-2] Latent Class Analysis of Family of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그림 Ⅲ-2] 발달장애인 가족의 잠재계층 유형

발달장애인 가족의 잠재계층 3개의 유형은 ‘문화예술중심형’,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 ‘문해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첫째, ‘문화예술중심형’은 전체의 49.6%를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24.4%, 20.5%, 25.2%, 22.8%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 가족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문화예술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은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54.8%, 40.5%, 53.6%로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15.5%, 0.0%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절반 혹은 낮은 의향으로 나타나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문해중심형’은 전체의 15.5%를 차지하였으며,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각각 35.6%, 0.0%, 6.7%, 0.0%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의 발달장애인 가족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가 높아 ‘문해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과 만족도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 Ⅲ-7> 에서 살펴보았다.

<Table Ⅲ-7> Valid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latent class and satisfaction
<표 Ⅲ-7>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과 만족도 차이검증

division	Literacy Arts Culture-centered type (a) (n=80)	Job Culture-centered type (b) (n=58)	Arts Citizen-centered type © (n=49)	Literacy Job Arts-centered type (d) (n=35)	total	F	post verification
	M(SD)	M(SD)	M(SD)	M(S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222)	3.39 (.52)	3.50 (.45)	3.51 (.48)	3.76 (.40)	3.50 (.49)	4.861**	a,b,c <d
family (N=256)	Art-centered type (a) (n=127)	Exploration type (b) (n=84)	Literacy-centered type © (n=45)		4.09 (.57)	.758	-
	M(SD)	M(SD)	M(SD)				
	4.10 (.56)	4.03 (.58)	4.16 (.57)				

** $p<.01$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이 3.76(*SD*= .40)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이 3.51(*SD*= .48), ‘직업인문교양중심형’이 3.50(*SD*= .45),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이 3.39(*SD*= .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4.861, p= .003). 특히, 발달장애인은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이 가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에 따라 만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d),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c), ‘직업인문교양중심형’(b),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a) 순으로 각기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은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에 비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기초문해교육중심형’이 4.16(*SD*= .57)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교육중심형’이 4.10(*SD*= .56),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이 4.03(*SD*= .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을 도출하였고, 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과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및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응답할 확률이 높은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응답할 확률이 높은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향 여부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4개 유형의 각 집단의 크기는 35.4%, 26.0%, 23.6%, 14.9%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의 잠재계층은 2가지 혹은 3가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선호하고, 이용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잠재계층 분석한 결과 직업능력추구형, 여가문화향유형, 자기계발형, 사

회기여추구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연구 결과(길혜지, 김민수, 2019)와 비교해보면, 이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보다는 인문교양교육, 기초문해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기 원하는 잠재계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참여하기 원한다는 연구와 유사하며(박미진, 김기룡, 2021), 이에 발달장애인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3개의 유형으로 '문화예술중심형',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 '문해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응답할 확률이 높은 '문화예술중심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절반 혹은 낮은 확률을 보인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응답할 확률이 높은 '문해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3개 유형의 각 집단의 크기는 49.6%, 34.9%, 15.5%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잠재계층은 1가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거나, 혹은 특정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선호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자녀들이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한다는 연구와 유사하다(김기룡, 나경은, 2015).

셋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프로그램 잠재계층에 따라 만족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은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에 비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시설 이용 만족도는 '문해중심형 '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중심형',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서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의 4가지 유형으로 잠재계층이 확인되었고, 가족의 잠재계층 유형은 '문화예술중심형',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 '문해중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주목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잠재계층에서 응답 확률이 낮은 잠재계층이었던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 잠재계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의 잠재계층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2개에서 3개까지 함께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은 문화예술교육 혹은 기초문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1개만 이용할 의향이 있었으며 어떠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탐색하는 잠재계층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고무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이 4개 유형으로 분류가 된 점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 네 집단에 따라서 적절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고안해야 하겠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및 지원 방안이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박미진, 주영하, 김기룡, 2020).

둘째, 앞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이나 평생교육 기관의 관계자 등에 의해 요구되어 왔음이 보고되었기에,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잠재계층은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실제 발달장애인 잠재계층에서 응답 확률이 낮은 잠재계층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응답한 이용 만족도는 높았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개발·운영하는 차별적인 방안 또한 필요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발달장애인이 바라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차원적인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성과를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Cho, S. M. (2021. 11. 29). Promotion of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rum is open for discussion in academia as well. Retrieved on November, 21, 2021, from the World Wide Web:https://theindigo.co.kr.

[조성민 (2021. 11. 29).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학계에서도 논의의 장 열려. https://theindigo.co.kr 에서 2021. 11. 29. 인출]

Kil, H. J., & Kim, M. S. (2019).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type; Affecting factor.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3), 773-796.

[길혜지, 김민수 (2019).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및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3), 773-796.]

Ku, H. W., & Chung, I. J. (2019). The tran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latent classes of academic factors and their latent classes of physical health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30*(2), 333-363.

[구혜완, 정익중 (2019). 고등학생의 학업 잠재계층과 신체건강 잠재계층 간의 전이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0(2), 333-363.]

Kim, K. R. (2020).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333-341.

[김기룡 (2020).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333-341.]

Kim, K. R., & Na, K. E. (2015). Analysis of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4), 315-336.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315-336.]

Kim, D. Y., Park, I. Y., Park, M. J., Yoon, J. H., & Cho, C. B. (2016). Request of parents for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oul Special City.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1), 37-64.

[김두영, 박인용, 박미진, 윤지현, 조창빈 (20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모의 요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1), 37-6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0). *Lifelong Education Ac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법제처 (2007). 평생교육법.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6). *Act on guarantee and support for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법제처 (2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종: 교육부.]

Park, M. J., & Kim, K. R. (2021). Experiences of use and needs from learners at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oul.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4*(3), 85-112.
[박미진, 김기룡 (2021).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3), 85-112.]

Park, M. J., & Kim, D. Y. (2016). Metaphor analysi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2,* 63-85.
[박미진, 김두영 (2016).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메타포(metaphor) 의미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2, 63-85.]

Park, M. J., Ju, Y. H., & Kim, K. R. (202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consumers and suppli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2*(3), 171-200.
[박미진, 주영하, 김기룡 (2020).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71-200.]

Sim, S. S. (2019). A study on the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living environment of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Research of case management, 10,* 31-49.
[심석순 (2019).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거주환경에 따른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사례관리연구, 10, 31-49.]

Yang, I. S., Ahn, D. G., Nam, Y. R., & Han, J. E. (2020).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1), 117-149.
[양인숙, 안덕근, 남영란, 한정은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1), 117-149.]

Han, K. G., Kim, W. H., & Joo, K. Y. (2020).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utur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FGI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5*(1), 135-157.

[한경근, 김원호, 주교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1), 135-157.]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468–481.

Muthen, B., & Muthen, L. K. (2000). Inter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gectory classes. *Alcoholism, 24*(6), 882-891.

국문초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과 만족도 관계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식 비교

주 영 하[1] • 박 미 진[2] • 김 기 룡[3]
[1]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강사, [2]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3]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222명과 가족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4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 ‘직업인문교양중심형’, ‘문화예술시민참여중심형’, ‘문해직업문화예술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잠재계층 유형은 3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중심형’, ‘직업인문교양시민참여탐색형’, ‘문해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문해문화예술인문교양중심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차원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식, 잠재계층분석, 대상중심적 접근, 만족도

논문접수: 2021. 11. 16. / 수정본 접수: 2021. 11. 29. / 게재승인: 2021. 12. 15.

※ 교신저자: 김기룡(iles7@joongbu.ac.kr)